

# “자기주도학습·이해력 향상 집중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예비 중1은 늘어나는 학습량과 달라지게 될 학교생활이 설레이면서도 낯설 것이다.

입학 전 달라지는 중학교 학습 대비는 어떻게 해야하며 학업방향은 어떻게 설정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형성될 시기이기도 하다.

입학을 43일 앞둔 현재 전문가들은 자기 주도적 공부습관을 기르고 다독 등을 통해 사고력과 이해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학교 진학 후 달라지는 교육환경과 미리 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 ◇공부습관 기르기

예비 중1은 입학 전 남은 시간 동안 초등학교 학습을 잘 마무리 짓고 지나친 예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배웠던 내용을 탄탄하게 복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진학 후에는 학업에 쫓겨 독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 많은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책 읽는 습관은 사고력과 이해력 향상은 물론 논술을 대비하는 효과까지 있다.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부터는 부모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학업 계획을

### 예비 중1, 달라지는 교육환경 준비 이렇게

#### 입학 전 남은기간 초등학습 마무리 복습 탄탄히 출결사항·내신성적 반영...자유학년제 진로탐색

세우고,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한 대화를 통해 아이와 잘 맞는 학습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해 좋은 공부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

공부습관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우선 문제가 안 풀리면 끝까지 붙잡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집착력을 키워야 한다. 어려워 향상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소금이 물에 녹는다' 라고 표기하는 반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소금은 용해된다' 로 바꿔 표기한다.

이처럼 한자 어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과서 속 바뀌는 어휘들만 예습하더라도 학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 된다. 또 예습을 통한 이해와 요약정리능와 암기를 활용한 복습을 바탕으로 공부습관을 기르자.

### ◇달라지는 점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교실에 상주하며 모든 과목을 가르쳤던 반면, 중학교는 과목별 담당교사가 따로 있다. 중학교는 매시간 다른 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쉬는 시간과 수업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또 수업시간이 40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나는 등 수업시간도 더 많다. 또 초등학교 때는 담임교사가 알람장을 통해 그날의 준비물과 과제에 대해 알려줬지만 중학교에서는 각 과목 수업 시간마다 고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 과제나 준비물을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중학교의 출결 사항은 내신 성적에 포함돼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지각은 반드시 사전에 담임교사

에게 알리고 이후 약 봉투나 처방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의 기준은 내신이다. 내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과 성적으로 과목별로 성적에 반영되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비율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높은 내신 점수를 위해서는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 점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단,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의 봉사활동만 인정이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보통 1년에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채워야만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유 학년제를 통한 진로탐색도 게을리하지 말자. 자유 학년제는 학생들이 일반 교과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기 주도 학습,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이 강의 중심 교육 및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이나라 기자



호남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6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에 도전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호남대 제공

## 호남대 간호과, 국가시험 전원합격 도전

호남대 간호학과가 오는 21일 치러지는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6년 연속 100% 합격률 달성 도전한다.

간호학과 교수진은 최근 건강관강의실에서 마무리 시험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 방문해 응시생 118명 전원의 합격을 기원하며 간식물품을 전달하고 응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박상철 총장도 최근 간호학과 등 보건과학계열 6개학과 270여명의

재학생들을 만나 응원 메시지와 함께 샌드위치와 음료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간호학과는 최첨단 시뮬레이션 장비 및 지역 우수보건의료기관과의 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고시에 대비한 특강과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등 학교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5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영예를 이어오고 있다. /이나라 기자

## 광주대, ESG 창업가 육성한다

### 충남 한서대·중국 연태대 등 4개 대학과 업무협약

광주대가 한·중 4개 대학과 손잡고 ESG 혁신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광주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학교 인성관 3층 회의실에서 충남 한서대, 중국 연태대, 중국 산둥공상대, 중국 루동대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ESG 경영 인식 확산과 소셜벤처 창업가 육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식에는 광주대 나중희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한서대 안승곤 창업교육센터장, 루동대 장덕강 국제협력처장, 산둥공상대 송민 국제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 5개 대학은 협약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할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ESG 경영을 실천할 연합 창업팀 육성 공동교육 프

로그램 기획 및 운영, ESG 관련 창업기업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공동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성공적인 소셜벤처 창업가 육성을 위한 ESG 관련 공동사업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대 나중희 산학협력단장은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양국 학생 간 협업과 글로벌 창업기업 발판 마련, 양국 간 ESG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루동대 장덕강 국제협력처장은 "한·중이 ESG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5개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이나라 기자

## 전남교육청, '꿈키움 캠퍼스'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맞춤형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꿈키움 캠퍼스'를 운영한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꿈키움 캠퍼스'는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고교-대학이 연계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으

로 운영 시기, 개설 과목의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 또는 학습형 실기집중과정으로 진행된다.

학생 선택과목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교육청이 연계해 개설과목을 확정하고, 대학이 강사인력풀과 학습장,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이나라 기자

### 광주교육청, 학습 결손 지원 '다 같이 교육회복 프로'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 같이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시교육청이 코로나에 따른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심리·정서를 치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중에도 초·중·고 2만 60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사 진단·추진 및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방학 중 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수강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5명 내외로 구성된 소규모 교과 보충반을 별도 운영해 개별 맞춤형 학습과 심리·정서 지원까지도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에 따른 결손을 한꺼번에 보충해 참여 학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습 결손을 해소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212억원을 들여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강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나라 기자



광주여대 교직원센터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광주여대 제공

## 광주여대 교직원센터, 교육부장관 표창

### 교원양성과정 단위별 최우수

광주여대 교직원센터가 5주기(2019~2020년) 교원양성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원양성과정 단위별(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8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2021년 2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일반대학 교육과(유아교육과, 중등특수

###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미용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육대학원(미용교육전공)이 각각 1,000점 만점에서 800점 이상을 취득해 전국 4년제 대학 교원양성기관에서 유일하게 교원양성과정 단위별로 모두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광주여대는 교원양성과정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학과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교육여건 분석, 영역별 추진과제에 따른 활동 계획·이행실적을 구체적

으로 제시해 지속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선재 총장은 "교원양성과정 단위별 모두 최우수 A등급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아 기쁘고, 앞으로도 우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석 교직원센터장은 "교원 양성을 위한 총장님의 관심과 지원, 자체진단에 참여한 위원과 실무진의 노고와 함께 어우러져 가능했던 결과"며 "교원임용 및 관련분야 취업률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교원양성기관 명문사학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직한 일반인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